

PREVIEW

제 10회 PT & Critic 전병구 개인전
Byungkoo Jeon solo exhibition

전시기간 | 2017. 10. 13 금 - 11. 2 목
오프닝 리셉션 | 2017. 10. 13 금 18시
PT & Critic 프로그램 | 2017. 10. 21 토 16시
(패널 : 강석호 작가, 안소연 비평가)



© 인터뷰

Q. 캔버스에 담게 될 풍경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직접 사진을 찍거나 온라인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또한 영화의 스틸컷을 회화로 옮긴 작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품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공간에 관한 작가의 경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해요.

A.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주변 풍경, 사물, 이미지 등을 회화로 옮겨요. 주로 직접 찍은 사진을 이용하나 종종 SNS, 영화, 스포츠 중계 등에서 캡처를 하기도 하죠. 제 일상은 직접 마주치는 실재뿐 아니라, 모니터나 핸드폰 등의 스크린 안 세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다양한 경로에서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특정한 장면을 선택하고 편집을 통해 거리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들의 출처의 구분은 사라지고 캔버스 표면 위로 편입이 되죠.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끌리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편이며, 다 그려지고 나서야 흐릿한 정서적인 일관성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Q. 주변의 풍경은 사진으로 더 손쉽게 빠르게 포착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화로 옮겨지는 경우, 재료의 질감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하죠. 대부분 유채 물감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고 가벼운 물감의 두께, 전반적으로 다운된 톤의 색 사용을 통해 전병구 작가 특유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재료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별히 염두에 두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그림을 털 그리는 것에, 그림을 멈추는 지점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물감이 첩첩이 쌓여 캔버스 표면을 덮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최대한 얇고, 털 그리는 것, 질감, 색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대상을 좀 더 평면적으로 바라보고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막상 그리기가 시작되면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지만, 동시에 회화만의 재미인 것 같기도 하고 이중적인 마음이 늘 들어요.

Q. 인물화의 경우,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마주하게 된 <터미널에 있는 남자>, 버스에서 잠들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 바닥을 응시하는 투수 등 지켜있거나 상심한 듯 보이는,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등을 주로 담고 있어요. 인물화를 통해 대상이 되는 인물의 이야기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관객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주의적으로 현실을 묘사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일상적인 풍경을 생경하게 보는 데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있나요?

A. 대상의 선택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는 편이지만 표면 위에서 나의 상태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자 해요. 그것은 내성적이고 표현에 익숙하지 못한 제 개인적 성향이 그림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해요. 질문에서 말하는 그림들은 모두 제가 우연히 마주친 타인들이 대상이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내 지난 경험과 감정들을 떠올리며 제 자신을 투영했었어요. 거리감이 느껴지는 제 목들과는 달리 타인의 초상화인 동시에 자화상이기도 하죠.

Q. 전시는 관객과 만나는 자리인데, 관객이 작품을 접하고 어떻게 감상하기를 기대하나요? 혹은 전달되기를 바라는 무언가가 있나요?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품을 볼 때 중점적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작은 그림은 관람자가 가까이 다가가 그림 안으로 들어가야 온전히 감상을 할 수 있어요. 그 몰입의 순간, 무한한 크기의 세계로 확장된다고 믿어요. 오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 시간이 지난 뒤에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림이길 바라죠.

Q.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 주세요.

A.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요.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은 늘 유동적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기회들이 다음에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불확실성에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어요.

2017 작가미술장터
블라인드 데이트 Blind Date

2017 작가미술장터
블라인드 데이트 BLIND DATE

2017년 11월 15일~11월 19일 (5일) 12시 - 20시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 2층 / 방배중앙로 156 2층
기획 : 남서울예술인마을 주최 및 후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연계행사 1 아트 플리마켓 : Work in Progress 2017.11.15* - 11.19* 부대프로그램
연계행사 2 북 컬렉션 세미나 2017.11.18* 4pm 패널 : 더북소사이어터
연계행사 3 해외 아트 시리즈 - 포르투갈 2017.11.18* 5:30pm 패널 : Lourenço Egreja

강석호 seok ho kang
고재욱 Koh Jaewook
권오상 Osnag Gwon
권혁 Kwon Hyuk
구민정 Koo Minjeong
김다음 Kim Daum
김서진 Seojin Kim
김시연 Kim Siyeon
김영민 Kim YoungMin
김은진 Kim Eunjin
김정모 Kim Jung Mo
김지민 Kim jimin
김환희 Kimhwanhee
남진우 Nam Jinwoo
노은주 Rho Eunju
노와정 RohwaJeong
문승희 Moon Seunghee
박지훈 Park Jihoon
백경호 Kyungho Baek
백정기 Beak Jungki
변상환 Byun Sanghwan
세버리 Seo Beauri
성유진 Sung Yujin
송민우 Minwoo Song
신기운 Shin Kiwoun
심아빈 Shim Ah-Bin
안길원 An Kilwon

양수형 Yang Soohyung
유영진 Yoo Youngjin
유지훈 Jeehoon Yu
윤가림 Yun Garam
율리안 Julian Ott
이동근 Donggeun Lee
이수경 yeesoogyung
이세준 Lee Sejun
이승찬 Seung Chan Lee
이노강 Lee Nogang
이정형 Lee Chunghyung
이종철 Lee Jongchul
이준희 Joonhee Lee
장성은 Chang SungEun
장종완 Jang Jongwan
장한 Jang Hann
전병구 Byungkoo Jeon
정연두 Jung Yeondoo
조혁수 Cho Hyeoksu
지누박 Zinoo Park
최승훈 Choi Sunghun
최연근 Choi Yeonkeun
추미림 Chu Mirim
펠릭스 Felix Nybergh
한성우 Han Sungwoo
한정림 Han Junglim
한황수 Han hwangsu

헤직프레스 Hezik Press
호상근 Ho Sangun
홍순명 Hong Soun

Marco Moreira 마르코 모레이라
Sara Coelho 사라 코엘료
Vera Mota 베라 모르타
Teresa Braula Reis 테라에사 브라울라 헤이즈
Tatiana Macedo 타티아나 마베도
Sara Bichão 사라 비샤오
Mônica do Miranda 모니카 데 미란다
Pedro Calapez 페드로 칼라페스
Mariano Renella 마리아노 레넬라
Júlia Kater 줄리아 카터
João Serra 주앙 세라
Hélène Veiga Gomes 엘렌 베이가 고메스
Gabriela Machado 가브리엘라 마사도
Pedro Cabrita 페드로 카브리타
Ricardo Carvalho 리카르도 카발로
Antonio Diaz Grande + Raúl Hevia 안토니오 디아스 그란지 + 라울 헤비아
José Pedro Croft 조제 페드로 크로프트
Martín Guerra 마틴 게하
Márcio Vilela 마르시오 빌렐라
Pedro Pires 페드로 피리스

참여작가

www.facebook.com/2017blinddate

대구 아트페어 Daegu Art Fair

2017 대구아트페어에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참여합니다.

개막식 | 2017. 11. 7 화 오후 5시
행사기간 | 2017. 11. 8 수 - 11. 12 일
장소 | 대구컨벤션센터 (EXCO 1층)
참여작가 | 강석호 백경호 이세준 전병구 추미림 한성우 한황수

부스위치 |

| REVIEW with PHOTOS |

박용석 개인전 <당신의 기대>
Park Yong-seok solo exhibition <What's your perspective?>
2017. 9. 5 화 - 2017. 9. 30 토



지워지고 없는 것이 내게 말을 건다. 질문 비슷한 길 반복해서 던진다. 생각하게 만든다. 나는 시리(siri)가 아니기에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갈등이 보일 때, 상반된 A or B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아픈 머리는 꽤 이성적이다. 그러다 마지막 드로잉 작품이 내게 'BYE'라 하며 'HI'라 한다. 그건 마치 전시장을 나가서 금방 잊겠지만 또 다시 찾아올 갈등에 대한 머리 아픈 생각을 예견하는 것 같다.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1 | 식물들: 자카르타 모노레일 103, 4min 52sec, HD, 2015 (음악: 한옥미)
2 | 문장만들기_당신이 말했잖아요, 가변크기, 2017
3 | 전시장 전경

최승훈, 이혁 <CONSTRUCT>
Choi Sunghun, Rhee Hyuek <CONSTRUCT>
2017. 8. 11 금 - 2017. 8. 31 목



1 | 오프닝 리셉션, 8월 11일
2 | 아티스트 토크, 8월 26일
3 | 전시장 전경

Japan and Korea Exchange Exhibition
Spirit from OBJECT
2017. 9. 27 - 2017. 10. 7
CASO Contemporary Art Space Osaka

윌링앤딜링과 갤러리 CAS가 공동 기획한 한일 교류전 <사물로부터의 정신 Spirit from Object>을 가졌습니다.

참여작가
강석호, 김시연, 박지훈, 백정기, 최승훈, 한정림, 홍범, 후나다 카요, 히라마추 노부유키, 카나자와 켄이치, 카와나가 마시히로, 나카매 히로부미, 오노 히로시, 사사오카 타카시



1, 2 | 전시장 전경, CASO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홍순명 작가는 대구 미술관에서 개인전 <장밋빛 인생>을 가졌습니다. 2017년 9월 26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박경률 작가는 영국 런던 Madame Lillie Gallery에서 개인전 <A Meeting Place>가졌습니다. 2017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세준 작가는 2010년 부터 현재까지의 작업을 살펴볼 수 있는 <포락지>를 출간하였습니다. 독립 출판 서점을 중심으로 배포 중이라 합니다.

강현선, 김다움 작가는 일민 미술관 <공동의 리듬, 공동의 몸> 공동체 아카이브전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9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권혁 작가는 런던 사치갤러리에서의 아트페어 <START>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홍승혜 작가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는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9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강현선 작가는 경주 우양 미술관에서 단체전 <메타-스케이프: Meta-scape>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인환 작가는 교토 아트 센터 <아시아의 회랑 현대미술전>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8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추미림 작가는 성수동 아뜰리에 아키에서 단체전 <Em pathy>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 W&D NEWS |

김인선 디렉터는 주말마다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다. 발견 당시 그녀는 막장 미스터리 스릴러 미드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한다.

독립 기획자로 활동중인 최정윤씨가 윌링앤딜링의 협력 큐레이터로서 새 식구가 되었다. 우리 모두 너무 든든하다. :D

한황수 코디는 회를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고래로 태어나겠다는 꿈을 꿴지만 고래는 플랑크톤만 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

조근준 인턴은 을지로 3가에 위치한 공간 '작은물'에서 남몰래 <망한 사진>展에 참여했다.

인턴으로 활동했던 최원재는 8월 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다시 작가로서 작업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꽃길만 걷길..

윌링앤딜링의 새로운 가족으로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이행진 인턴이 합류하였다. (짝짝짝) 뉴이스트의 황민현 군을 짝사랑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오시는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 행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 한황수, 조근준, 이행진
감 수 : 김인선
발행일 : 2017년 10월 12일

Meet & Talk : 김서진 & 김지민
2017. 9. 13 수 19시

이번 M&T에서는 남서울예술마을의 김서진, 김지민 작가와 '형식과 태도'라는 공통된 주제로 작업에 있어 슬로우 프로세스를 취하고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마주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 김지민 작가
2 | 김서진 작가